

“애정과 이해는 훌륭한 번역 첫걸음”

“번역에 있어 원저의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도의 영적 스승으로 추앙 받고 있는 오소 라즈니쉬의 책만을 번역하고 있는 번역가 손민규(40·강원도 춘천시 서면 씨)는 번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손 씨가 라즈니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강원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던 시절. 헌책방에서 우연히 손에 쥘 권의 라즈니쉬 책이 젊은 철학도의 길을 바꾸게 한 것이다. 그 후 손 씨는 춘천시내 서점은 물론 서울까지 드나들면서 라즈니쉬의 책을 섭렵했다. 그의 이 같은 독서열의는 영어판 라즈니쉬 책을 읽게 해주었다. 그러나 짧은 영어 독해력으로 영어판 책을 읽고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전을 옆에 놓고 랏킨 필 줄을 치며 몇날 며칠을 읽었습니다. 두 번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 씨가 번역가의 길을 가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말로 옮긴 책이 출간됐고, 지금까지 라즈니쉬의 종교비판서 <신과 악마 완벽한 커피> <시간과 공간과 <금강경> <태일>을 비롯해 35권을 내놓았다. 다음 달부터 매달 도서출판 지혜의 나무에서 명상서 4권을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50여권을 번역한 대만의 체타나에 이어 라즈니쉬 책을 가장 많이 번역한 것으로는 그가 두 번째다.

“유식” 관련 책을 즐겨 읽을 정도로 불교학에도 남다른 안목을 갖추고 있는 손 씨는 라즈니쉬 책을 번역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귀띔한다. 라즈니쉬의 책에는 한국 선불교에 대한 일화가 종종 나오는데 거의 모두가 일본불교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번역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원문에 충실했다’는 말이다.

번역가는 글쓴이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손 씨에게 라즈니쉬는, 지극한 애정의 대상 정도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 라즈니쉬는 ‘공기’ 같은 존재다.

또한 그는 번역 이외에도 명상 수행자들을 위한 사이트 명상나라(meditation.co.kr)도 운영하고 있다. 라즈니쉬를 비롯해 동·서양의 영적인 명상이 20여명의 가르침과 각종 명상법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명상 음악 등 명상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춘천=김종근 기자

라즈니쉬 책 35권 옮겨 사이트 명상나라 운영

명상서적 번역가 손민규 씨

책과 삶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번역가 손민규 씨

‘인간’ 해탈로 가는 고통의 존재

‘끝없는 물음, 인간’ 이효범 지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인류의 화두다. 이에 대한 탐구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종교와 학문 그리고 사상과 따라 달리 해석되어왔다. 최근 출간된 <끝없는 물음, 인간> (스나우)은 그런 다양한 탐구 가운데 종교, 학문 그리고 한국의 전통사상 등 세 개의 창으로 나눠 인간에 대해 묻고 답한 연구서다. 글쓴이는 10여 년 동안 대학에서 ‘인간론’을 강의해 온 이효범(호연문화연구소장) 교수.

철학·심리학 등 각 분야 인간이해 지평 넓혀 원효 ‘보살형’ 인간 제시

인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 이 책은, ‘인간은 소우주’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소우주인 인간의 오묘함을 밀도있게 살피기 위해 여러 관점과 분야로 서술 범위를 확대해 간다.

인간에 대한 정의는 ‘정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하다.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종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상에 따라 인간을 보는 시각은 천양지차로 갈라진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글쓴이는 여러 경전을 토대로 ‘불교의 인간론’에 대해 천착한다. 그는 우선 <비유경>의 ‘흑백이서(黑白二鼠)’의 비유에서 가장 쉽게 불교의 인간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는 미망한 인간의 생활을, 꼬끼리는 무상을, 빈 우물은 생사의 샘을, 독룡은 죽음의 그림자를, 네 마리



무지에서 비롯된 망상 속에서 오욕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범부라고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의 길을 제시했다. 따라서 불교에서의 인간은 실천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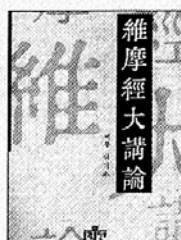
글쓴이는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을 ‘해탈을 지향하는 고통스런 존재’라고 정의한다. 반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구원의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죄인이며, 예수의 부활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 역사상 빼어난 사상이인 원효 스님을 통해서도 인간을 살피고 있다. 이른바 ‘원효의 인간론’을 탐구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보살’임을 강조한다.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의 미망하는 것이다. 글쓴이의 이러한 주장은 원효 스님의 <기신론>, <금강삼매경론> 등에 나타난 원효 스님의 사상을 깊이 있게 탐구한 결과다.

이밖에도 글쓴이는 인문학, 생물학, 신경생리학, 심리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며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값 1만3천원.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백봉의 명쾌한 깨가불교 강의



‘유마경 대강론’ 김기추 지음

<유마경 대강론> (불광)은 ‘한국의 유마거사’로 불리는 백봉 김기추 거사가 <유마경>을 강론 형식으로 풀어놓은 책이다.

이 경전은 바야살리를 무대로 주인공 비마랄라 카르티와 부처님 제자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다룬 희곡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유마경>의 문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던 것도 이러한 편집체와 높은 사상성 때문이었다. 특히 이 경전은 보살행을 강조, 불교도를 실현하기 위해 재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인공 유마는 불교 교단에 진보적 바람을 일으킨 주역으로, 악과 불의에 물들지 않고 아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보살의 길임을 역설한다. 오늘날까지 유마의 정신이 빛나는 것도 집착, 편견 등의 세속적 얽매에서 벗어난 무아의 변증법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값 1만2천원.

김종근 기자

신행 초석 다지는 불교의식 이해

정각스님 지음 ‘한국의 불교의례 I’

불자라면 당연히 불교의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의식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불교의례에 대해 잘 몰랐던 불자들이 있다면 <한국의 불교의례 I> (운주사)을 자신 있게 권한다. 불교의례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세우는 것은 물론 신행의 주춧돌로 삼을만한 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 정각(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스님은 한국 불교의 의례에 대한 연구에 앞서 ‘불교의례의 의미’부터 살핀다. 불교의례는 요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탈의 성취에 있기 때문이다. 값 1만8천원.

김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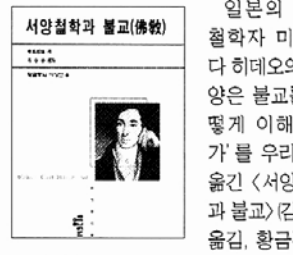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름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미지인하우스
2	절음 기차게 잡히는 법	청 견	바다의 마음
3	봄 여름 가을 겨울	빙 투세	이 레
4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5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립
6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일 지	민 족 사
7	깨달음 뒤의 깨달음	소갈민홍	민 읍 사
8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립
9	산사에서 부처는 편지	명 정	홍 은 날
10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립

도서 안내: (02)737-0695

“서양인에 주는 불교 메시지”

서양철학과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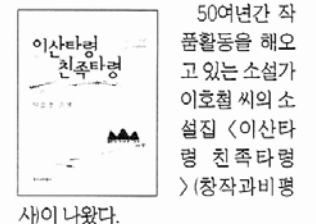
되는 기독교와 동양의 불교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서구사상이 동양사상(불교)을 어떻게 ‘오해’하여 왔는가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불교는 무신론이다.” ‘불교는 철학이 아니다’ ‘종교는 아니다’ 등이 서양이 불교를 잘못 받아들이는 대표적 예다. 서양에서 불교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기독교가 정신적 문화적 바탕이 되었던 보편주의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 입장은 신을 세우는 기독교관을 진정한 종교로 보기 때문에 범신론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를 기준으로 왜곡된 서구의 불교 이해를 바로잡자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긴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서구화된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정색을 하고 읽어야 할 책으로 보인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분단과 이산아픔 그려

‘이산타령 친족타령’



50여년간 작 품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 이효철 씨의 소설집 <이산타령 친족타령> (창작과비평) 사이 나왔다.

이 소설집은 이산과 재회를 그린 표제작 ‘이산타령 친족타령’을 비롯해 6.25전쟁 중 삼남지역 때문에 군법회의에 회부돼 총살 당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하사관의 이야기 ‘비범 불법 합법’ 등 아홉 편의 중·단편소설을 묶었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상』에 철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참회기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편안하게 이끌어 가는 도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열어보십시오. 기쁘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종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